

◆ 안톤 체호프의 고향
로스토프 州

(Ростовская область)



빅토리아

목 차

- I. 종합개관
 - 1. 일반 개황
 - 2. 자연환경
 - 3. 주요 도시
 - 4. 지역 상징

- II. 상세개관
 - 1. 역사
 - 2. 정치
 - 3. 경제
 - 4. 사회문화
 - 5. 한국과의 관계

I. 종합개관

1. 개관

1.1 위치



로스토프 주는 남부연방관구에 속해 있으며 동유럽 평야 남쪽, 코카서스 산맥 북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아조프 해(46km)의 타간로프 만과 접해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큰 강으로 돈 강(Don River)이 도시를 가로지른다. 로스토프 주는 흑해와 연결되어 있는 내륙해 아조프 항에서 시작되었고, 돈 강과 볼가 강을 연결하는 운하 건설로 해상무역이 발달했다. 흑토곡창지대로 ‘러시아의 텃밭’으로 불린다.

주도는 로스토프 나도누(Ростов на Дону)이며 이는 “돈 강 안에 있다”는 뜻이다. 로스토프 주와 인접한 행정주체로는 동쪽으로 볼고그라드 주(Волгоградская область), 북쪽으로 보로네시 주(Воронежская область), 남쪽으로 크라스노다르 주(Краснодарский край)와 스타프로폴 주(Ставропольский край), 칼미키야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Калмыкия),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쪽으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주(Донецкая область)와 루간스크 주(Луганская область) 등이 있다.¹⁾ 로스토프 지역은 남쪽으로는 남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를, 북쪽으로는 러시아 중심부를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1) 로스토프 주정부, <http://english.donland.ru>

1.2 일반개황

공식명칭	로스토프 주(Ростовская область)
행정중심	로스토프 나도누(Ростов-на-Дону)
면적	100.967km ² (러시아연방 내 33위)
설립일	1937년 9월 13일
인구	4,152,518명(2024년 기준, 러시아연방 내 6위) ²⁾ 로스토프 나 도누-1,140,487명, 도시화율은 약 67.9%
민족구성	러시아인(85.8%), 아르메니아인(2.05%), 우크라이나인(0.62%), 체첸인(0.34%), 고려인 인구 약 11,669명 (2021년 기준, 사할린 및 프리모르스키 지방 다음으로 러시아 내에서 3위) ³⁾
공용어	러시아어
행정수반	슬류사르유리 보리소비치(Слюсарь Юрий Борисович) ⁴⁾ (임기: 2024년 11월 4일 - 현재)
의회의장	르라치코유리 알렉산드로비치(Ищенко Александр Валентинович) ⁵⁾
연방관구	남부연방관구
경제지구	북카프카즈 경제지구
지역총생산	지역총생산(GRDP) - 약 57.6조 루블 (2021년 기준,러시아 전체 연방 구성체 중 14위) 1인당 지역 총부가가치 -(GVA) 약 647,630.7루블 (2023년 기준,2022년의 556,629.3에서 증가)
주요산업	가공제조업(19.4%), 농업(12.8%), 운송업(9.8%),이 외에도 전력 생산, 석탄 채굴, 건설업 등
주요 자원	석탄(탄광 자원), 천연가스, 석유, 건축 자재(석회석,점토,모래등), 농업 자원(흑토, чернозём), 수자원
주요도시	로스토프나도누(Ростов-на-Дону), 타간로그(Таганрог), 노보체르카스카(Новочеркасск), 샤흐티(Шахты)

2) 로스토프 주는 러시아 연방에서 모스크바, 모스크바 주, 크라스노다르 주, 상트 페테르부르크, 스페르돌보스크 주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로스토프 주정부, 변경일 2018년 7월 24일, <http://english.donland.ru>).

3) 로스토프 주는 다양한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만큼 로스토프주에는 많은 민족단체들이 조직되어 있으며, 주 정부는 매년 '민족의 날'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이 지역에 고려인들의 이주요인을 살펴보면, 교통의 이점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이주가 용이하고, 중앙아시아에서 대도시로 이주하려는 고려인들이 바로 대도시로 진출하기보다는 남부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시 대도시로 이주를 시도하는 일종의 경유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고려인들의 전통적인 경제활동인 농사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중앙아시아에서 농사에 종사했던 고려인들이 자신의 경제활동을 이곳에서도 지속시킬 수 있다. 농업환경이 탁월하다는 점 외에도 농산물 판매에 용이한 교통로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에 비해 임금이 높다. 다양한 대학 및 연구소 등이 있어 높은 교육열을 가

2. 자연환경

2.1 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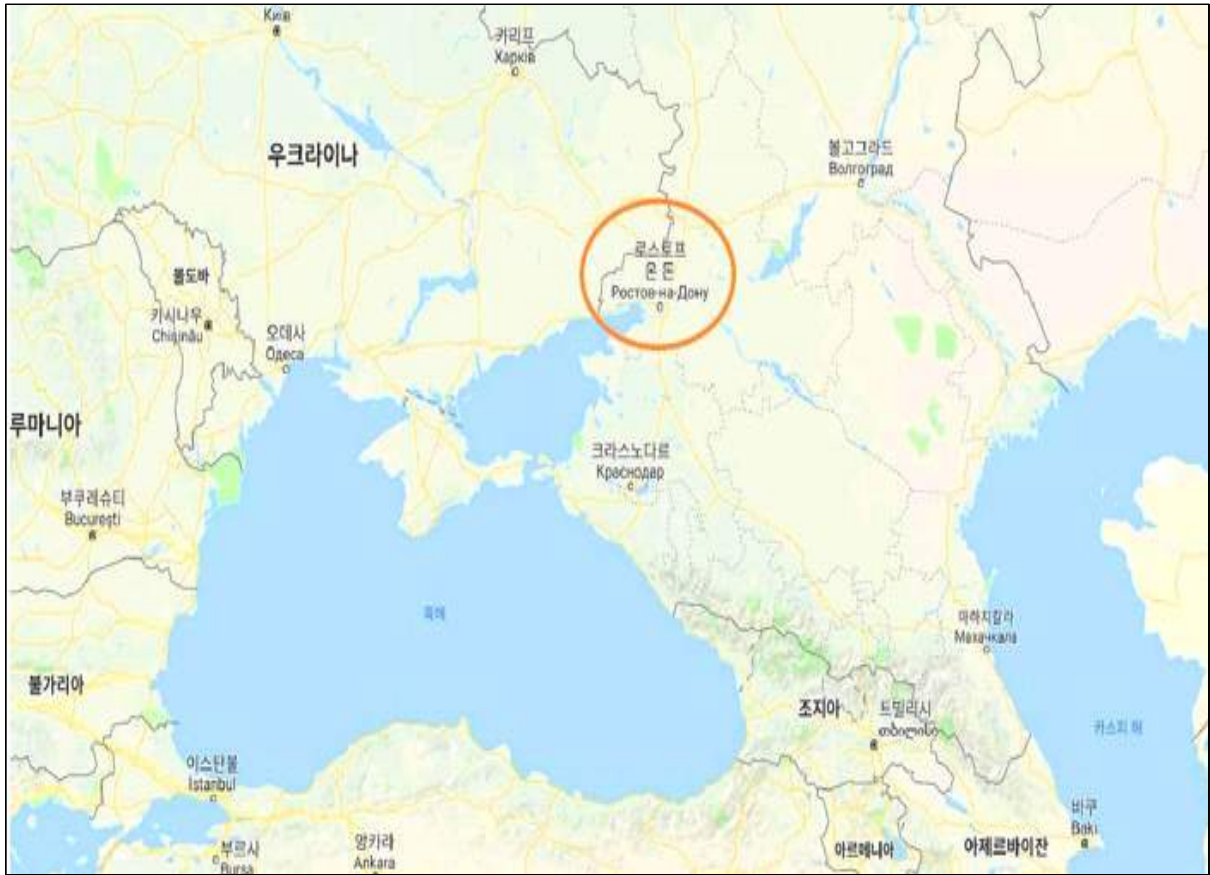
로스토프 주는 동유럽 서남부 평원의 끝자락에 있으며 남쪽으로는 북카프카스 지역과 접하면서 대체적으로 고저기복이 없는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쪽은 중앙러시아의 고지대이며 서쪽은 돈네츠키(Donetskiy mountain-range) 동서쪽은 살스코-만누츠크스카야와 에르게니 능선(Salsko-Manychskaya and Ergeni ridges)이 있다.

로스토프 주는 육로와 해상경계를 이루고 있다. 동쪽으로 볼고그라드 주(Волгоградская область), 북쪽으로 보로네시 주(Воронежская область), 남쪽으로 크라스노다르 주(Краснодарский край)와 스타프로폴 주(Ставропольский край), 칼미키야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Калмыкия), 마지막으로 서쪽으로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주(Донецкая область)와 루간스크 주(Луганская область) 등이 있다. 러시아의 하천이 중앙아시아에서 발원하여 북극해로 유입되나, 남부연방에 있는 돈 강은 흑해와 접한 아조프 해로, 볼가 강은 카스피해로 들어간다. 주요 수자원인 돈 강, 볼가 강, 도네츠크 강이 있으며 러시아에서 가장 풍부한 수자원을 자랑한다. 또한 농업에 유리한 온화한 대륙성 기후이고, 평균기온이 1월에 영하 7도, 7월에 23도이다. 여름철의 고온과 긴 생육기간은 밀, 멜론, 원예작물, 포도 등 재배에 용이하다.⁶⁾

진 고려인들을 만족시키며 과격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띤 범죄의 발생이나 제노포비아 현상이 비교적 덜한 편으로 북카프카스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정치안보 면에서 안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고려인과 같은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기에는 안전하다 (김혜진, 2010, 342-343쪽).

4) 7) 로스토프 주정부, <http://english.donland.ru>

5) 로스토프 주의회, <http://www.zsro.ru/e>



로스토프 주와 러시아 주요 도시간 거리 및 이동시간

도시	거리	비행기	철도	자동차
모스크바 (Москва)	1090km	1시간35분	22시간	13시간30분
이르쿠츠크 (Иркутск)	5442km	7시간35분	4일 13시간	2일 20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 (С. Петербург)	1797km	2시간35분	1일 9시간	22시간 30분
소치 (Сочи)	559km	1시간	9시간7분	7시간
하바로프스크 (Хабаровск)	8746km	12시간30분	7일6시간	5일5시간
크라스노다르 (Краснодар)	279km	-	4시간	3시간20분
칼리닌그라드 (Калининград)	1894km	2시간40분	2일4시간	23시간30분
예카테린부르크 (Екатеринбург)	2270km	2시간55분	2일5시간	1일4시간
보로네시 (Воронеж)	597km	4시간 (모스크바 경유)	11시간	7시간25분

2.2 기후

로스토프 주는 냉대습윤기후대에 속해 있지만, 겨울은 비교적 춥지 않다. 여름은 길고 따뜻하며 화창한 날씨가 지속되며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의 주요 도시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온화한 기후이다. 가장 추운 2월의 평균 기온은 -3.1도 정도이며, 가장 더운 6월의 평균 기온은 23.3도이다. 아래의 표는 로스토프 주의 연중 최고, 최저 및 평균 온도 그리고 강우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표에 따르면 이 지역을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많이 덥지 않고 따뜻한 6-8월경이나 비교적 서늘하고 시원한 4-5월 혹은 10월이다.⁷⁾ 강우량은 연중 고르게 40-50mm이며, 평균 일조시간은 5-9월 사이가 월 평균 200~300시간으로 연중 가장 길다.

로스토프주의 기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년
최고	15	19.8	26	33.6	35.6	38.4	39.6	40.1	38.1	31	23.1	18.5	40.1
중고	-0.1	0.7	6.9	18.1	22.3	26.6	29.2	28.8	22.6	15	6.3	1.2	14.6
중	-2.9	-3.1	2.2	10.6	16.8	20.9	23.3	22.6	16.7	10	2.9	-1.7	9.9
중저	-5.3	-5.6	-0.9	6.1	11.4	15.8	18	16.9	11.8	6.2	0.3	-4	6.9
최저	-31.9	-30.9	-28.1	-10.4	-4.3	-0.1	7.8	2.6	-4.6	-10.4	-25.1	-28.5	-31.9
강우량 (mm)	59	53	51	47	56	70	53	44	49	39	53	69	643
일조시간 (시간)	65.1	84.1	127	189	263	285	313	294	240	158	63	37.2	2,119

*출처: World Climate, <http://www.world-climates.com>

2.3 자연환경

돈강 하류 지역은 지형적으로 대부분이 평지이거나 완만한 구릉 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농업 활동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세계적으로도 비옥한 토양으로 잘 알려진 체르노좀(흑토, чернозём)이 널리 분포해 있어, 곡물 재배를 비롯한 다양한 농작물의 생산에 적합하다. 동부 지역으로 갈수록 기후가 점차 건조해지면서 일부 반건조 초원 지대, 즉 스텝(степь) 지형이 나타나며, 이는 전통적으로 유목이나 방목 중심의 농업 활동과 연관된다. 반면, 서부 지역은 아조프해와 인접해 해안선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어업이나 해상 운송 등과 같은 해양 활동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지형적·기후적 다양성은 돈강 하류 평야 지대를 경제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⁸⁾

7) Погода.Ru. <http://pogoda.ru>

8) 로스토프 주정부, <http://english.donland.ru>



2.4 주요 지형 및 수계

돈강(Дон)은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내륙 수계 중 하나로, 총 길이는 약 1,870km에 달하며, 중부 러시아를 가로질러 로스토프 지역을 지나 아조프해로 흘러들어간다. 이 강은 역사적으로도 교통과 무역, 농업, 군사적으로 큰 역할을 해온 전략적 수로이며, 오늘날에도 지역 경제와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돈강의 주요 지류 중 하나인 세베르스키 도네츠강(Северский Донец)은 길이 약 1,058km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가장 큰 강이다. 이 강은 돈강 수계의 핵심 구성 요소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 걸쳐 있으며, 양국의 산업용수, 농업용수, 식수 공급에 필수적인 수자원이다.

그 외에도 이 지역에는 여러 중소하천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길이 420km의 마냐치강, 789km에 이르는 살강, 그리고 비교적 짧은 79km의 아크사이강이 있다. 이들 하천은 지역 농업과 생태계를 지탱하며, 계절에 따라 유량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솔료노예 호수는 이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담수호로, 최대 수심은 5미터, 해변 너비는 약 100미터, 해안선 길이는 1,800미터에 이른다. 이 외에도 돈강 하류 지역에는 맑고 깨끗한 담수가 흐르는 수많은 협곡과 하천들이 분포해 있으며, 이러한 수계는 지역의 자연 생태를 풍부하게 하고 사람들의 정착과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⁹⁾.

9) <http://donland.ru>

2.5 주요 자원

돈강 하류 지역은 러시아 내에서도 농업 생산에 가장 적합한 지역 중 하나로, 그 핵심에는 체르노좀(흑토, чернозём)이라 불리는 비옥한 토양이 자리 잡고 있다. 이 토양은 높은 유기물 함량과 우수한 수분 보유력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특성 덕분에 곡물 및 다양한 농작물의 재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이 지역에서는 밀, 보리, 해바라기, 옥수수, 콩, 감자, 사탕무 등 다양한 작물이 생산되며, 특히 기후 조건과 토양의 조합 덕분에 돈강 유역은 세계적인 곡물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농산물은 아프리카, 이집트, 터키,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국가 등 다양한 지역으로 수출되며, 러시아의 농업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농업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풍부한 광물 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로스토프주는 러시아 남부에서 가장 큰 석탄 매장지 중 하나로, 소비에트 시절부터 중요한 산업 중심지로 발전해 왔다. 주요 광산은 샤흐티, 구코보, 노보체르카스크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광산은 폐쇄되었지만, 여전히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도 존재한다.

이 외에도 석회석, 규사, 자갈, 석탄슬래그 등의 비금속 자원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지역 건설 산업의 원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 자원은 시멘트, 콘크리트, 유리 등 다양한 건축 및 제조 산업의 기반을 이루며, 지역 경제에 지속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 및 광업 자원의 결합은 돈강 하류 지역을 러시아 남부에서 전략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돈강 하류 지역은 풍부한 농업 및 광물 자원 외에도 일부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와 일상 생활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우선, 이 지역의 동부 및 남부에는 소규모의 천연가스 매장지가 분포해 있다. 이들 가스전은 대규모 상업적 수출보다는 지역 내 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주로 산업용 연료, 주택 및 공공건물의 난방, 그리고 지역 소규모 발전소의 연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자원의 존재는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일정 부분 줄이며, 지역 기반 산업과 생활 안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석유 자원의 경우 돈강과 마니치강 분지 일대를 중심으로 소규모 석유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질 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일부 유전이 형성될 가능성이 보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대형 유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규모 석유 채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석유 자원 개발은 주로 잠재적 가능성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¹⁰⁾.

이처럼 돈강 하류 지역의 에너지 자원은 석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석유와 천연가스 모두 지역 내 소비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은 여전히 지역 인프라와 자립적 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10) <http://ecodon.dspl.ru>

2.6 주요 도시

로스토프 온 돈(Ростов-на-Дону)은 약 114만 명의 인구를 가진 러시아 남부의 주요 도시로, 로스토프주의 주도이자 돈강 하류 지역의 정치, 경제, 교통, 문화의 중심지이다. 전략적 위치 덕분에 철도와 도로, 항만이 집중되어 있으며, 다양한 교육기관과 연구소들이 밀집해 있어 교육과 학문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타간로크(Таганрог)는 약 25만 5천 명의 인구를 보유한 아조프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해양 산업과 조선업이 발달해 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호 안톤 체호프의 고향으로도 유명하며, 문학적 유산과 더불어 해양 무역과 수산업의 중심지로 기능한다.

샤흐트(Шахты)는 약 23만 8천 명의 인구를 가진 도시로, 로스토프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석탄 산업 중심지 중 하나이다. 소비에트 시절부터 탄광 산업으로 성장해왔으며, 오늘날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석탄 채굴이 계속되고 있어, 산업적 정체성이 강하게 남아 있는 도시이다.

노보체르카스크(Новочеркасск)는 인구 약 17만 명 규모의 도시로, 역사적으로 돈 카자크(казаки)의 문화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도시 전역에는 정교회 건축물과 기념비들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러시아 남부 정체성을 대표하는 전통과 문화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도시이다.

볼고돈스크(Волгодонск)는 인구 약 17만 명의 도시로, 러시아 남부에서 원자력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이다. 이곳에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으며, 전력 생산과 관련된 기술 및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전력 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산업 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 도시는 각각 고유한 기능과 산업적 특징을 지니며, 로스토프주 전체의 경제와 문화, 역사적 정체성 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¹¹⁾.

11)

<https://zsro.ru/o-rostovskoy-oblasti/administrativno-territorialnoe-delenie/?ysclid=mbmznmsyxf123960606>

3. 주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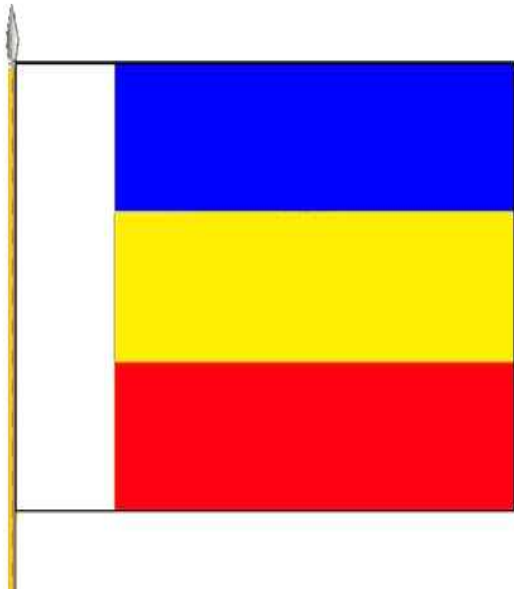
3.1 주기

로스토프 주의 주기는 1996년 10월 28일, “로스토프 주의 주기에 대한 주 법령 No. 31-3C”에 따라 1996년 10월 28일에 제정되었다. 위에서부터 파란색, 노란색, 붉은색의 세 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3:2로 구성된다. 이 주기의 색과 구성은 소비에트연방이 창설된 직후인 1918년 돈 카자크의 후신인 대(大) 돈 부대가 사용하였던 부대 깃발과 똑같은 형태이다. 당시 파란색은 카자크인을, 노란색은 칼미키야인을, 붉은색은 러시아인을, 흰색은 지역주민의 단합을 상징한다.¹²⁾

3.2 주문장

로스토프 주의 문장은 1996년 10월 28일, “로스토프 주의 주문장에 대한 법령 No.32-ZS”에 따라 제정되었다. 문장의 바탕은 푸른색이고, 은색의 기둥과 붉은 성곽이 있으며 성곽 하단에 밀이 있다. 하단에는 물결모양의 벨트로 감싸도록 구성했다. 상단에는 제정러시아의 왕관을 쓴 독수리가 있다. 왕관을 쓴 독수리는 돈 코사크(Great Don Cossack)부대를, 성곽은 16세기 돈 코사크 부대가 남부국경을 수호하는 것을, 물결모양의 벨트는 돈 강을 따라 코사크 거주지임을, 밀은 문화 및 농업의 수확 증대를 상징한다. 1803년 알렉산드르 1세가 돈 코사크 부대를 승인하면서 제정러시아와의 연관성을 표현했다.¹³⁾

<주기>



<주 문장>



12) 11) 로스토프 주정부, <http://english.donland.ru>

3.3 주훈장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히틀러는 러시아를 침략했으며 로스토프 주민들은 민병대 등을 구성하여 해방을 위한 반격했다. 점령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는 167개의 게릴라 부대, 비밀 조직, 애국 단체 등이 결성되어 독일군에 맞서 싸웠다. 종전 이후 공헌을 인정받아 약 280여 명의 로스토프 주민이 '소비에트의 영웅' 칭호와 함께 레닌 훈장을, 로스토프 나도누 시는 '군사명예도시'칭호를 수여받았다.

II. 상세개관

1. 역사

1.1 형성

로스토프 주는 러시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곳 중 하나이다. 키메르인은 이 지역에서 최초의 민족으로 이들에 대한 기록은 기원전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 키메르인들은 북서카프카즈 지역의 돈 강 하류에서 꾸바니 강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 거주하였다. 이후 기원전 5세기부터는 그리스 이주민들의 정착이 시작되었으며, 기원전 3세기경에는 사르마트인들이 돈 강 유역으로 건너와 살기 시작하였다. 3세기 초에는 고트족이 이 지역을 침략해 동쪽으로 드네프르강에서부터 돈 강과 아조프해 연안에 이르는 지역을 지배하였으며, 이후 훈족, 하자르족, 투르크족, 몽골족 등 여러 유럽과 아시아계 민족들이 이 지역을 지배하거나 거주하였다.¹⁴⁾

1.2 15-20세기 초

16세기에 이르러 돈 강을 중심으로 돈 코사크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은 1918년 소비에트가 형성되면서 그 주권을 잃기 전까지 약 4세기 동안 로스토프주에 거주하며 지역 내뿐만 아니라 제정 러시아 전체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돈 코사크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들이 있으나, 현재는 타타르족이나 몽고족들의 침략을 피해 도망치기 시작한 여러 인종(루테니아인, 터키인, 게르만인 등)들이 현재의 로스토프 주 돈 강 유역에 모여 살기 시작하여 군대사회를 이루었다는 설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돈 코사크는 민주주의 사회제도를 가졌으며, 카자취 크루그(Казачий Круг)라 불리는 공동 의회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렸다. 18세기에 이르러 제정 러시아 황제에 의해 그들의 우두머리가 선출되기 이전까지는 이 의회를 통해 아타만(Ataman)이라 불리는 지도자를 직접 선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마술에 뛰어났으며, 태생적 영향 때문인지 어린 시절부터 고도의 군사훈련을 받아 병사로서의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그들은 17세기에는 제정 러시아의 최전방에서 영토 확장을 위한 선봉대이자 외세의 침략을 막는 방위군으로서의 역할을, 18~19세기에는 민중 봉기를 진압하는 황제 친위대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며, 1917년 러시아 내전에서는 볼셰비키 적군에 대항하는 백군에 속해 싸웠다. 하지만 적백내전에서 백군이 패하며 돈 코사크 세력 또한 상당 부분 축소되었으며, 소비에트 정부의 코사크 해산정책(Расказачивание)에 의해 돈 코사크는 그 자치권을 잃게 된다. 하지만 돈 코사크 부대는 소비에트가 해체된 1990년대 초반 다시 부활하게 되고 1997년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존재를 인정받게 된다.¹⁵⁾

14) 로스토프 주정부, <http://www.donland.ru>

15) Absolute astronomy. http://www.absoluteastronomy.com/topics/Don_Cossacks



1.3 1918년-현재

지정학적으로 돈 강과 아조프 해 연안, 카프카즈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로스토프 주는 소비에트시기의 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업과 공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경제발전과 함께 인구 또한 빠르게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1926-1989년 약 2배 가량의 인구성장률을 보이게 된다. 1941년 로스토프 주에서는 물론이고 소련 전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의 발발한 독일과 소련 간의 대조국전쟁(Великая Отечественная война)이 바로 그것이다. 히틀러의 독일군은 '바르바로사(붉은 수염)' 작전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유럽 부분을 점령할 계획이었고, 이에 따라 소련의 남부 지구들은 대조국전쟁의 주요 격전지가 되었다. 나치 군대는 특히 로스토프나도누를 카프카즈로 향하는 관문으로 여기며 이 지역을 점령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였다. 파시스트 군대는 이탈리아 군대의 지원을 업고 로스토프 주를 포함한 소련의 남부 지구를 손 쉽게 제압하였으며, 점령 이후 남는 군대를 모스크바 제압을 위한 중앙 전선으로 차출 배속 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남부 전선에서는 어느 정도 병력의 공백이 생기게 되었으며 로스토프 주민들은 민병대 등을 구성하여 나치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반격을 시행하였다. 점령 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는 167개의 게릴라 부대, 비밀 조직, 애국 단체 등이 결성되어 독일 군에 맞서 싸웠으며, 종전 이후 이러한 공헌을 인정받아 약 280여 명의 로스토프 주민이 '소비에트의 영웅' 훈장을, 로스토프나도누시는 '명예군사도시' 칭호를 수여 받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은 전쟁의 승전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냉전시대를 주도하며 세계 2강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하지만 미국과의 과도한 군비 경쟁은 국내 문제에 대한 예산 투입을 축소시켰으며, 이에 따라 경제 성장 둔화와 식량 배급 사정의 악화라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이것이 1962년 로스토프주의 노보체르카스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¹⁶⁾

1962년 5월 말 콜호즈의 압력으로 육류 가격이 30%, 기름 가격이 25% 인상되었으나, 임금은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금 인하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작업량

16) 로스토프 주정부, <http://www.donland.ru>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노보체르카스크 전기 기관차 공장 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파업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근처 다른 공장의 노동자들까지 파업에 참가하기 시작하였고, 당일 12시경에는 이미 파업 참가자가 5,000여명에 이르렀다. 이 파업은 소비에트 군대에 의해 당일 저녁 7시부터 이튿날에 걸쳐 진압되었고, 진압의 과정에서 26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0여 명의 파업 주도자들이 체포되어 사형 또는 강제 노동을 선고 받았다.¹⁷⁾

1960년대 초반에 발생한 이 사건이 당시 중앙집권부의 사건 은폐에 의해 1980년대까지 소련의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매년 로스토프 주에서는 이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가 진행된다. 2012년 그 해는 노보체르카스크 사건 50주년 추모행사 외에도 도시 건립 75주년과 1812년 나폴레옹의 침공을 막은 조국전쟁에서의 승리 200주년이 모두 겹치는 해로 로스토프 주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깊은 해였다.

17) 로스토프 주정부, <http://www.donland.ru>

1.4 로스토프나도누 — 군사 영웅 도시(Ростов-на-Дону — город воинской славы)



즈미요프스카야 발카(Змиёвская балка)는 러시아 로스토프나도누(Ростов-на-Дону) 북서부에 위치한 깊은 협곡 지역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발생한 참혹한 대학살의 현장이다. 이곳은 나치 독일의 침공 하에 벌어진 홀로코스트 범죄 중 하나로, 특히 러시아 영토 내에서 일어난 가장 규모가 큰 유대인 집단 학살 장소로 기록되어 있으며, 종종 “러시아의 바비야르”라고 불린다. 바비야르(Бабий Яр)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벌어진 대규모 학살지로, 즘미요프스카야 발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 학살의 상징적 장소다.

역사적 배경: 1942년 여름, 나치 독일군이 로스토프 지역을 점령한 직후, 유대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학살 작전이 시작되었다. 1942년 8월 11일부터 12일 사이, 단 이틀 동안 독일 나치의 SS 아인자츠그루펜(Einsatzgruppen) 특수부대는 수천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을 체포하고 즘미요프스카야 발카 협곡으로 강제로 이송하였다. 이 작전에는 SS, 게슈타포, 독일 경찰뿐만 아니라 일부 협력적인 현지 민병대도 가담하였다.

학살의 과정: 이 지역에서 자행된 학살은 특히 잔혹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은 대체로 유대인 민간인들이었지만, 이 외에도 소련군 전쟁 포로, 공산주의자, 반파시스트 저항 운동가, 지식인, 정신질환자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학살 방식은 주로 총살이었으며, 일부는 ‘가스 트럭(Gaswagen)’이라 불리는 차량 내부에 배기가스를 주입해 질식사시키는 방식으로 살해되었다. 이 차량은 당시 나치가 ‘조용하고 효율적인 처형 방법’으로 개발한 방식이었다. 피해자들은 협곡 가장자리에서 총살되거나, 협곡 안으로 끌려가 집단 총살을 당한 뒤 매장되었다.

희생자 수: 정확한 희생자 수는 아직까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대체로 15,000명 이상이 이틀간의 학살로 생명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점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추가 학살이 이루어져, 전체 희생자 수는 27,000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다. 이는 단일 장소에서 이루어진 홀로코스트 학살 중 러시아 내 최악의 규모로 평가된다.

상징성과 기억: 즘미요프스카야 발카는 소련 시절에는 제한적으로만 언급되었으며, 특히 희생자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공공연히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러시아와 국제사회에서 모두 중요한 홀로코스트 기념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곳에는 현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비와 기념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8월 11일과 12일에는 추모식이 열려 전쟁과 학살의 비극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기념비에는 러시아어와 히브리어로 된 문구가 새겨져 있으며, “우리는 기억한다. 우리는 잊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후세에 전달되고 있다¹⁸⁾.

18)

<https://visitdon.ru/things-to-do/dostoprimechatelnosti/memorial-zmiyevskaya-balka-v-rostove-na-donu/>

2. 정치

로스토프 주의 정치는 삼권분립의 원리에 의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부의 수반은 지방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지사로서 산하 부서들을 총괄 지휘 통제하며 행정부의 주지사가 산하 부서들을 총괄한다. 입법부는 주 의회이고, 수장은 의회 의장이다. 주 의회는 주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며 지역주민을 대변한다. 법원이 사법부를 맡고 있으며 이곳에서 민사, 형사 및 행정재판을 한다.

2.1 입법부

러시아 연방의 고스두마(Госдума)는 미국 기준으로 하원의회에 해당된다. 두마의 총원은 450명이며 이 중 225명은 정당명부제 방식의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나머지 225명은 지역 선거로 선출된다. 하원의 권한은 연방 총리 및 고위 공직자 임명동의, 연방 내각 불신임, 사면, 연방 대통령 탄핵, 법안 제출 등이다.¹⁹⁾ 로스토프 주의 두마는 법안제출, 헌장 채택, 시장 및 위원회임명, 예산결정 등 연방의 대표부 역할을 한다. 로스토프 주의 하원의원은 1994년 3월 27일에 최초의 의원선거를, 2018년 9월 9일에 제6회 의회선거를 실시했다. 60명의 의원(5년 임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러시아당 52명, 러시아연방공산당 6명, 정의러시아당 2명이 선출되었다. 현재 의장은 알렉산드르 발렌티노비치 이쉬첸코(Alexander Valentinovich Ishchenko, 통합러시아당)이다.

러시아 연방 상원은 170명의 상원의원(Council of Federation)으로 구성되며 연방주체별로 임기는 상이하다. 상원의원은 러시아 연방 소속 85개의 연방주체들에서 각 2명씩 임명(연방주체 입법부 대표 1명, 행정부 대표 1명)한다. 이들은 연방주체들 간의 경계선 변경 승인, 전쟁 및 계엄령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의 승인, 해외 파병, 대통령 탄핵, 최고중재재판소 판사들 임명, 검찰총장의 임명 및 해임, 회계감사원의 감사위원 임명 및 해임, 법안제출 등의 권한을 갖는다.²⁰⁾

로스토프 주는 행정부와 의회에서 지명된 2명의 연방 상원의원이 활동 중이다. 로스토프 주 입법부 대표는 루카비시니코바 이리나 발레루예브나(Rukavishnikova Irina Valeryevna), 행정부 대표는 부시민 에브게니 빅토르비치(Bushmin Evgeny Viktorovich) 상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²¹⁾

19) 17) 김선래, “러시아연방주체 개관 시리즈: 무르만스크 주”,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7년 8월, 25-26쪽.

21) 로스토프 주 입법의회, <http://www.translate.ru>

2.2 행정부

로스토프주의 행정부는 행정실을 제외하고 15개의 부서, 3개의 위원회, 1개의 특별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부서(Министерство)는 경제발전부, 재정부, 노동/사회발전부, 건설/토지발전부, 교통부, 농식품부, 산업에너지부, 천연자원/환경보호부, 문화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정보통신부, 보건부, 기업/단체의 재정개선및재산권관련부, 주거/공중위생부로 이루어져 있다. 위원회(Комитет)는 청소년정책위원회, 문화유산보호위원회, 문서관리위원회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부서(Инспекция)는 국립주택공급부서가 있다. 로스토프주의 주지사(Губернатор)의 임기는 5년으로 러시아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현재 주지사인(Слюсарь Борис Юрьевич) 슬류사르보리스 유리에비치는 2024년 11월 4일에 임명되었다.²²⁾

가. 주지사

로스토프 주 역대주지사

임기	주지사	세부내용
1대 주지사(1996-2010) 블라지미르 표도로비치 추브 (Чуб Владимир Фёдорович)		1980-83, 로스토프나도누공산당 제2서기장 역임 1985-89, 로스토프나도누 공산당 제1서기장 역임 1990-91, 로스토프 주 국민의회의장 역임 1991, 로스토프 주 행정부 대표 취임(주지사 권한) 1996, 로스토프 주지사 취임 2010-현재 선박회사 '아조프-돈' 대표이사
2대 주지사(2010-2024) 바실리 유리에비치 갈루베프 (Голубев Василий Юрьевич)		1957.1, 로스토프주 출생 1991-99, 모스크바주 레닌시 시장 역임 1999-00, 모스크바주 부 주지사 역임 2000-03, 모스크바주 제1부총리 역임 2003-10, 모스크바주 레닌시 시장 역임 2010-현재, 로스토프주 주지사 역임

22) 로스토프 주정부, <http://www.translate.ru/SiteResult.aspx?dirCode=re&templateId=General&url=https://www.donland.ru/activity/8>

3대 주지사(2024~ 현재)
(Слюсарь Борис Юрьевич)
슬류사르보리스 유리에비치



2003-2007년 항공기 로스베르톨
상업 이사
2005-2007년 러시아 국영 방위
사업 회사 '오보론프롬' 내 헬기
프로그램 책임자
2009-2010년 러시아 산업무역부
장관보좌관
2010-2012년 산업무역부 항공산
업 국장
2012-2015년 산업부 차관
2015년 2024년 통합 항공기 제조
회사 (OAK) 회장 겸 대표의사
2024년~ 로스토프주 주지사

슬류사르 주지사는 2024년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공식적으로 로스토프주 주지사로서의 임기를 시작하였다. 그는 법률, 행정, 경제 분야에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러시아 연방 내에서도 유능한 고위 공직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학력은 매우 탄탄하다. 1970년부터 1996년까지 그는 러시아 최고 학부 중 하나인 모스크바 국립대학교(MGU) 법학부에서 수학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통 법률 교육을 받았다. 이후 2003년에는 러시아 대통령 산하 국민경제 및 공공행정 아카데미의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이는 러시아 고위 관료들이 자주 수학하는 명문 교육기관으로, 행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2007년에는 남부연방대학교(Юж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의 박사 논문 제목은 “기업 시스템 관리의 사이버네틱 접근”으로, 이는 기업 경영 시스템을 사이버네틱스(제어이론과 시스템 분석 기반의 학문)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이론적·실용적 가치가 있는 연구였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경제학적 분석 능력뿐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였다.

그의 공직 경력과 국가 기여는 다양한 수훈과 명예직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4등급 조국공헌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이는 민간인과 공직자에게 수여되는 국가 최고 훈장 중 하나이다. 또한 ‘명예훈장(Орден Почёта)’과 ‘2등급 조국공헌 훈장 메달’을 수훈하였으며, 이는 사회 발전 및 공공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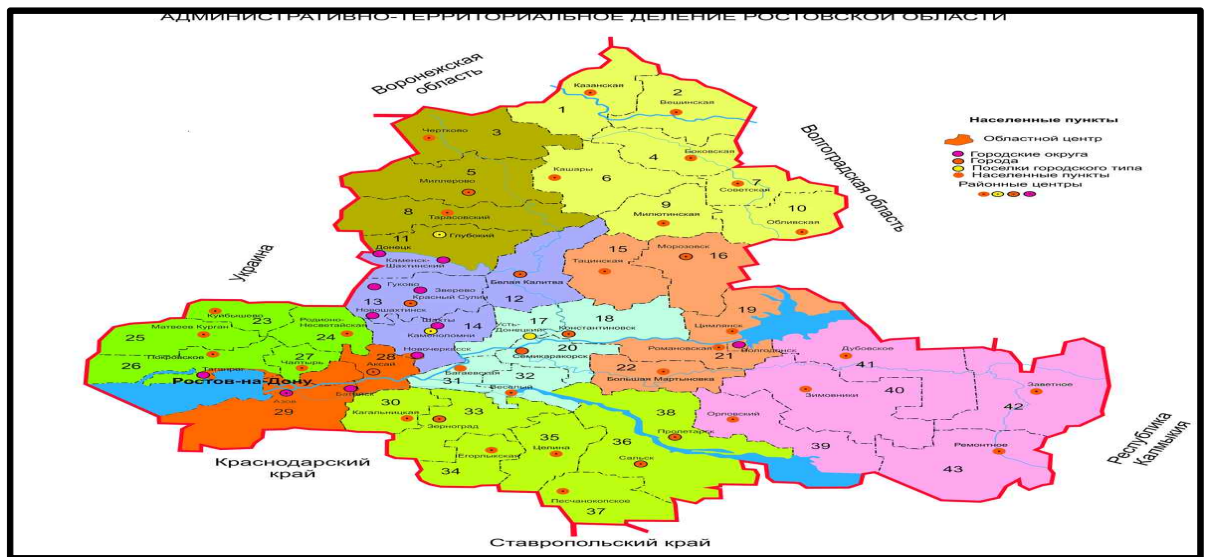
이 외에도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표창장을 받은 바 있으며, 항공기 제작 분야에서 업적이나 행정적 기여로 인해 ‘명예 항공기 제작자’라는 칭호를 받았다. 더불어 그는 러시아 행정직급 체계 내 최고 등급 중 하나인 ‘러시아 연방 2급 실무 고문(действите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оветник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 класса)’이라는 직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고위 정책 조연자 및 결정권자로서의 신뢰를 상징한다.

슬류사르 주지사는 이러한 학문적, 실무적 배경과 더불어 풍부한 행정 경험과 국가 기여도를 기반으로 현재 로스토프 지역의 행정, 경제 발전, 사회 안정을 이끄는 중심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²³⁾

나. 행정구

2005년 7월 25일 발효된 주 법령 No. 340-3C에 따르면, 로스토프 주는 총 463개의 자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다시 행정구성의 형태별로 12개의 시, 43개의 군, 17개의 읍, 391개의 면으로 나뉜다. 주도인 로스토프 나도누의 면적은 354km²이며 2013년 기준 1,103,7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와 비교했을 때, 면적은 마산시와 비슷한 크기이며 인구는 수원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로스토프나도누는 로스토프 주의 남서쪽, 돈강과 아조프 해가 만나는 지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카프카즈 지역이 존재하는 지정학적 이유로 '러시아의 남방 수도', '카프카즈로의 관문' 등으로 불린다.²⁴⁾

로스토프 주 행정구역



23) 로스토브 주 법원, <http://oblsud.ros.sudrf.ru>

24) 로스토프 주정부, <http://www.donland.ru>

2.3 입법부

알렉산드르 발렌티노비치 이센코(Александр Валентинович Ищенко)는 로스토프주 입법회의의 현직 의장으로, 2016년 10월 6일에 처음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2023년 재선에 성공하여 현재까지 그 직책을 맡고 있다. 그는 러시아의 대표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Единая Россия) 소속으로, 지방 정치와 입법 과정에서 오랜 경험과 영향력을 지닌 중견 정치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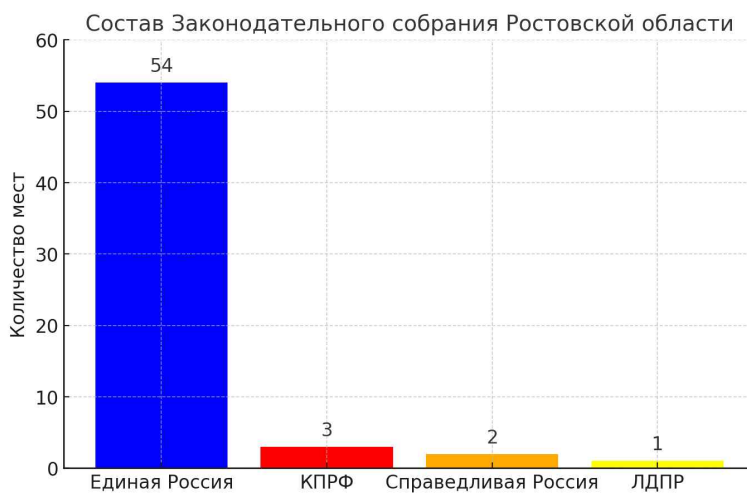
이센코 의장은 로스토프 국립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졸업하였으며, 젊은 시절부터 공식 경력을 시작하였다. 1993년부터 1995년까지는 러시아 대통령 로스토프 대표부에서 전문관으로 근무하면서 연방과 지방 간의 정책 조율과 행정 운영에 참여하였다.

그의 정치 경력은 1994년 로스토프주 입법회의 초대 의원으로 선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회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선에 성공하였고, 입법 활동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과 법률 제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도 활동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지방의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자치의 기틀을 다지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그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로스토프주 부지사로 재직하면서 행정적 역량과 정치적 신뢰를 더욱 확고히 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전략 수립, 연방 예산 확보, 지방정부 간 협력 조정 등 다양한 중책을 맡아 수행하였다.

그의 입법회의 의장으로서의 역할은 지역 입법의 총괄과 지방 정책 방향 설정에 중추적인 의미를 가지며, 그는 현재까지도 로스토프주의 정치 체계 안에서 안정과 연속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정당 기반, 행정 경험, 의회 운영 능력을 모두 겸비한 그는 로스토프주의 정치적 리더십을 대표하는 핵심 인물 중 하나이다.

2.4 로스토프 주 의회 구성



*출처: 로스토프 정부

로스토프주 입법의회는 총 60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의회 의원들은 혼합 선거제를 통해 선출되는데, 이는 전체 의석 중 30석은 지역구(소선거구제)를 통해, 나머지 30석은 정당 명부에 의한 비례대표 방식으로 선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각 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정당의 정책적 대표성을 동시에 반영하기 위한 절충형 제도이다.

2023년 선거 결과 기준으로, 러시아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Единая Россия)이 60석 중 54석을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다수당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는 지역 정치 구조에서 통합 러시아당의 강력한 영향력과 행정적 장악력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야당 측에서는 러시아 공산당(КПРФ)이 3석, 정의로운 러시아당(Справедливая Россия)이 2석, 그리고 자민당(ЛДПР)이 1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야당은 의회 내 소수 세력으로 활동하며, 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로스토프주 의회가 사실상 통합 러시아당 중심의 단일 지배 구조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입법 과정에서 여당의 주도권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비록 의석 수는 적지만 야당의 존재는 일정 수준의 다원성과 형식적 정치 경쟁 구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²⁵⁾.

2.5 사법부

바실리 니콜라예비치 타라스وف(Василий Николаевич Тарасов)은 2024년 9월 30일, 러시아 대통령령에 따라 로스토프주 대법원장으로 공식 임명된 법조계의 고위 인물이다. 그는 수십 년간 검찰과 법원 양측에서 다양한 직책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실무 경험과 행정 능력을 갖춘 베테랑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1965년 3월 17일, 러시아 남부의 아디게야 공화국 돈두코프스카야(Дондуковская) 마을에서 태어났다. 이후 법학의 길을 걷게 되었고, 1993년 쿠반 국립대학교(Kuban State University)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대학 재학 기간 중에도 이미 실무 경험을 쌓기 시작했던 그는 졸업 직후 곧바로 공직에 진출하였다.

그의 초기 법조 경력은 1992년부터 1993년까지 노보로스스크(Novorossiysk) 검찰청에서 수석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서 1993년부터 1998년까지는 투압세(Tuapse) 지역 검찰청에서 부검사 및 검사로 재직하며, 형사 수사 및 공공 기소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998년에는 사법 분야로 전환하여,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10년간 투압세 시 법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이 시기 그는 지역 내 재판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법원의 신뢰 회복에 기여하였다. 이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툴라(Tula) 주 법원 부의장으로 근무하며 상급 법원 행정에 대한 경험도 쌓았다.

그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라토프(Saratov) 주 법원장으로 재직하였고, 그 뒤를 이어 2017년부터 2024년까지는 보로네시(Voronezh) 주 법원장으로 법원 전체를 이끄는 주요 직책을 맡았다. 이 두 지역에서 그는 특히 복잡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을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사법 개혁과 내부 조직 정비에 주력하였으며, 후배 법관 양성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25) donland.ru

이러한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2024년 9월 30일부로 로스토프주 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번 임명은 러시아 연방 대통령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는 로스토프주 내 모든 법원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법 행정의 일관성과 법률 집행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바실리 타라소프는 지역 간을 넘나들며 다양한 법적 현실을 경험하고 해결해온 경륜 있는 법관으로, 특히 복잡적이고 갈등적인 사건을 조율하는 능력에서 두각을 나타내 왔다. 그의 리더십 하에 로스토프주 사법 체계는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²⁶⁾

26) 로스토프 주 법원, <http://oblsud.ros.sudrf.ru>

3. 경제

로스토프 주는 흑해와 지중해, 카스피해로 나가는 관문 역할을 하고, 발달된 운송인프라(철도, 항공, 운하 등), 천연자원의 높은 잠재성, 비옥한 토지(흑토), 수준높은 인적자원의 확보, 높은 소비업분야별 분포를 살펴보면, 도소매업, 기계제조업, 농업, 건설, 교통 순이다.

3.1 주요경제활동

3.1.1 경제개황

지역총생산 GRP(2023년 기준)	1약 57.6조 루블 남부연방관구내 1위,러시아 내 12위, 러시아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약 1.6%
1인당 GRP (2023년 기준)	약 64만 루블 남부연방관구내 3위(1위 아스트라한),러시아 내 29위
주요상업 및 대외교역	광업, 농업, 운송업 총액 345백만 달러 수출: 548,3백만 달러 수입은 203,2백만 달러 대외교역 회전을: 751,5백만 달러 ²⁷⁾
평균임금 1인당 GRP(루블)	52,100 루블 ²⁸⁾
실업률 (2023년 기준)	3.1% 남부연방관구평균 실업률 약 2.9%,러시아 전체 실업률 약 2.3%

27) 로스토프 주통계청,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в январе-марте 2019 года“, 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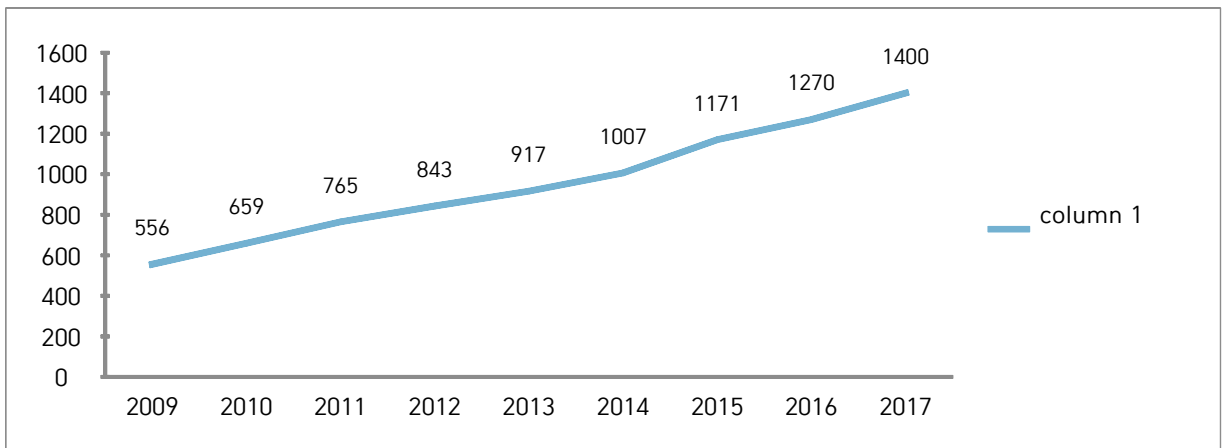
28) Alimenty-export, <http://alimenty-expert.ru>

3.1.2 지역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ion)

로스토프 주는 지경학적 유리한 위치, 발전된 운송 인프라, 풍부한 고급인력, 사회안전 등의 강점으로 러시아 남부의 공업, 농업, 기술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 로스토프 주의 2023년 지역총생산은 1.57 trillion pybles이고, 전년도에 비해 2.4% 증가했다. 이는 러시아 남부연방관구 내 1위, 러시아내 12위에 속하며 러시아연방 GDP의 1.6%를 차지한다. 로스토프 주의 대표적인 산업 분야로는 가공/기계제조업, 농업, 운송 및 통신업, 수렵, 임업 등이 있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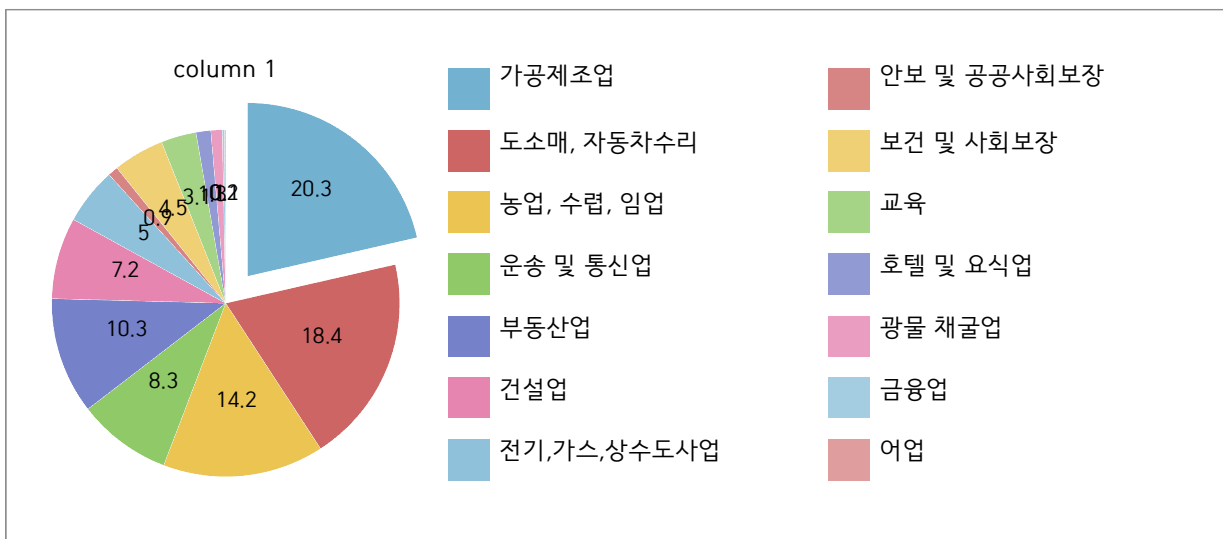
로스토프 주 GRP 추이

단위: 백만 루블



* 출처: 로스토프 주정부

로스토프주 GRP 내 산업별 비중³⁰⁾



* 출처: 로스토프 주정부 통계청

29) 로스토프 주정부, <http://deloru.ru/news/629424>

30) 로스토프 주정부 통계청, <http://rostov.gks.ru>

3.2 주요산업 및 주요자원

3.2.1 공업

로스토프주는 러시아 남부에서 가장 강력한 산업 기반을 보유한 지역 중 하나로, **지역 총 생산(GRP)의 약 28%**를 공업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로스토프주가 단순한 농업 중심 지역을 넘어, 다양한 중공업 및 기계산업이 융합된 종합 산업 거점임을 잘 보여 준다.

특히 로스토프주는 러시아 남부 연방관구 전체 공업 생산량의 1/4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관구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 중 하나이다. 이 지역의 산업은 생산량뿐만 아니라 기술력과 제품 다양성 측면에서도 전국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 볼 때, 로스토프주는 전기 및 증기 기관차의 약 70%, 그리고 콤팩트(대형 수확기)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중공업, 기계공업, 운송장비 제조 부문의 고도화된 산업 구조를 반영하는 수치이며, 러시아 국내 농업 및 철도 운송 인프라의 핵심 공급지 역할을 한다.

가. 주요 생산 품목

로스토프주의 공업 부문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 철강 및 금속제품: 구조용 강철, 파이프, 기계 부품 등 다양한 금속 가공 제품
- 석탄 및 정유 제품: 광산 자원을 기반으로 한 석탄과 정제 연료
- 가공식품: 곡물 및 해바라기유 기반의 식품 가공 산업
- 농업기계 및 산업장비: 콤팩트, 트랙터, 파종기 등 농기계 및 산업용 기계류
- 파이프 및 튜브류: 석유·가스 산업 및 건설 산업에 필요한 고강도 파이프
- 원자로 및 에너지 장비: 발전소용 보일러, 원자로 관련 구성 장치 등 고난이도 기계 설비

나. 대표 산업 기업

로스토프주를 대표하는 주요 산업 기업은 다음과 같다:

- НЗНП (Новошахтинский завод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정유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원유 정제 및 석유화학 제품 생산을 통해 지역 연료 수급과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ТАГМЕТ (Таганрогский металлургический завод): 금속 파이프, 철강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대형 기업으로, 주로 건설과 에너지 산업에 납품된다.
- Ростсельмаш (Rostselmash): 러시아 최대 농기계 제조사 중 하나로, 콤바인 및 다양한 농업용 기계를 생산하며 CIS 국가를 비롯한 해외로 수출도 활발하다.
- НЭВЗ (Новочеркасский электровозостроительный завод): 전기 기관차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으로, 러시아 철도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전기기관차의 상당 부분이 이곳에서 제작된다.
- Красный Котельщик: 원자력 및 열병합 발전소에 쓰이는 대형 보일러 및 에너지 장비를 생산하며, 고도의 공학 기술이 집약된 산업체이다.
- Роствертол: 헬리콥터 제조 분야에서 이름 높은 기업으로, 군사용 및 민간용 헬리콥터를 생산하며 러시아의 항공 산업을 대표한다³¹⁾.

이처럼 로스토프주는 에너지, 운송, 농업, 기계공학, 항공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고도화된 공업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단순한 생산 중심을 넘어 기술 집약적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지역의 산업 발전은 단지 지역 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러시아 국가 전체의 산업 인프라와 수출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31) expertsouth.ru

3.2.2 농업

로스토프주는 러시아 남부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지역 중 하나로 꼽히며, 이 부문은 지역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농업은 로스토프주의 지역총생산(GRP)의 약 14%를 차지하며, 약 140만 명, 즉 전체 인구의 1/3 정도가 농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이는 농업이 단순한 생산 산업을 넘어 사회 구조 전체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 생계 기반 산업임을 보여준다.

가. 지리적 · 환경적 조건

이 지역의 가장 큰 자연적 강점은 토양이다. 흑토(체르노즘, чернозём) 지역이 전체 면적의 64.2%를 차지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비옥한 토양으로, 곡물 및 다양한 작물 재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한다. 기후 역시 농업에 적합하며, 계절별 강우량과 일조량도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어 생산성이 높다.

나. 생산 규모 및 주요 작물

로스토프주는 러시아 전체 곡물 생산의 약 5%, 그리고 남부 연방관구 전체의 약 30%를 담당할 정도로 곡물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

주요 재배 작물로는 밀, 보리, 옥수수, 쌀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해바라기, 콩류, 사탕무 등도 널리 재배되고 있다. 특히 밀과 해바라기유는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용으로도 중요한 품목이다.

로스토프주의 전체 농지 면적은 약 820만 헥타르이며, 이 중 경작 가능한 면적은 약 580만 헥타르로, 이는 러시아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에 해당한다. 이러한 방대한 경작 면적은 대규모 기계화 농업과 현대적 재배 기술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생산량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

다. 식품 가공 산업

농업 생산은 1차 산업에 그치지 않고 식품 가공 산업으로 연계되어 지역 제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식품가공 부문은 전체 제조업 생산의 약 28%를 차지하며, 이 분야에는 약 200개의 대형 기업과 1,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들은 곡물 가공, 해바라기유 생산, 제과, 유제품 가공, 육류 및 수산물 가공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표 기업: Yug Rusi (Юг Руси)

로스토프주의 대표적인 농업 · 식품 가공 대기업 중 하나는 «Юг Руси»(Yug Rusi)이다. 이 기업은 매출 기준으로 로스토프주 1위, 남부 연방관구 전체에서는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시장 지위를 갖고 있다. Yug Rusi는 해바라기유 생산을 중심으로, 곡물 수출, 제분,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으며,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수출 시장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처럼 로스토프주의 농업은 생산-가공-수출까지 이어지는 종합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 비옥한 토양과 넓은 경작지, 풍부한 인적 자원, 강력한 기업 기반이 어우러져 러시아 전체 농업 발전의 중요한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³²⁾.

3.2.3 운송업

로스토프주는 운송 인프라와 천연자원 면에서 러시아 남부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교통과 자원의 결합이 경제 전반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가. 교통 인프라 및 운송

로스토프주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 모든 형태의 교통 인프라가 고르게 발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 물류와 인적 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철도망은 러시아 전국과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광물, 석탄, 곡물 등 대량 화물 운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로스토프는 러시아 유럽 지역과 남부, 흑해·카프카스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화물 운송 효율성이 매우 높다.

도로 교통은 고속도로와 지방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내륙 물류 및 지역 간 통합이 원활하다.

공항으로는 플라토프 국제공항(Platov International Airport)이 주요 관문으로 기능하며,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한 다양한 여객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항만은 아조프해와 연결된 강항·해항이 모두 존재하여, 내륙수로와 해상운송을 연결하는 복합물류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여객 운송 분야에서는 총 195개의 운송업체가 다양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근·장거리 운송 서비스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관광에도 큰 역할을 한다³³⁾.

나. 천연자원

로스토프주는 자원 기반 산업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석탄은 돈 분지를 중심으로 총 9개 광산에서 채굴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산업과 에너지 생산의 핵심 원료로 활용된다.

탄화수소 자원(석유와 천연가스)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 천연가스는 16곳, 유전은 1곳, 가스·석유 혼합 매장지는 21곳에 달한다.

이는 지역 내 산업용 연료, 난방, 소규모 발전소 운영 등에 이용된다.

금속 자원도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특히 금, 텅스텐, 티타늄과 같은 산업용·귀금속 자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향후 광물 산업의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된다.

32) mcx.donland.ru

33) maintransport.ru

다. 건축 자재용 광물

로스토프주는 건축자재로 활용되는 비금속 광물 자원도 매우 풍부하다. 시멘트 원료, 점토, 석회암 등을 포함한 총 1,128개의 매장지가 확인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 건설 산업은 물론 러시아 남부 전역의 인프라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라. 수자원

이 지역은 수자원 또한 매우 풍부하여 농업, 산업, 생활용수 등 다방면에서 활용된다. 돈강(Don), 볼가강(Volga), 아조프해라는 대규모 수계가 인접해 있으며, 대형 저수지, 인공 호수 및 천연 호수 약 250개가 분포해 있다. 이는 농업용 관개 시스템, 식수, 산업 냉각수, 관광 및 레크리에이션 자원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며, 로스토프주의 생태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로스토프주는 운송 인프라와 자원 기반이 매우 균형 있게 발전된 지역으로, 물류 허브이자 자원 중심지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통해 러시아 남부 전체의 경제·에너지·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³⁴⁾

3.3 로스토프주의 주요 산업 및 대표 기업

로스토프주는 농업뿐 아니라 기계 제조, 에너지, 식품 가공, 물류 운송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러시아 남부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래는 주요 산업별 대표 기업들과 그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 Ростсельмаш (로스트셀마쉬) — 농기계 및 기계 제조업체

러시아 최대의 농기계 제조업체 중 하나로, 콤팩트, 트랙터 등 다양한 농업용 기계를 생산한다.

CIS,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 비중이 매우 높으며, 로스토프주 산업의 국제화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 Росвертол (로스베르톨) — 헬리콥터 제조 전문 기업

Mi-26, Mi-28 등 군용 및 민간용 헬리콥터를 제조하는 러시아 주요 항공기 기업으로, 러시아 국방부 및 해외 수출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로스토프주의 전략 산업으로 분류된다.

- Ростовская АЭС (로스토프 원자력 발전소) — 에너지·전력 분야

국영 원자력 에너지 기업 Rosenergoatom(로스에네르고아툼) 산하에 소속되어 있으며, 지역 내 전력 공급의 핵심 공급원 역할을 한다. 남부 연방관구 전체 전력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34) 로스토프 주정부, <http://english.donland.ru>

- Таганрогский котлостроительный завод (타간로크 보일러 제작소)

대형 보일러 및 열교환기를 제조하며, 러시아 국내 발전소 및 해외 발전소에 수출되는 장비를 생산한다.

에너지 플랜트 산업과 관련된 중장비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Астон (아스톤) — 식품·농업 가공 기업

해바라기유, 식용유, 곡물 가공 등 다양한 식품 원료를 생산하며,

러시아 국내 및 세계 시장에 식품 원재료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식품 가공 기업이다.

- Юг Руси (유그 루시) — 식품 및 농업 통합 기업

해바라기유, 밀가루, 사료 등을 생산하고,

국내 유통망과 수출망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 농업·식품 기업이다.

매출 기준으로 로스토프주 1위, 남부 연방관구 3위의 대기업이다.

- Донской табак (돈스코이 타박) — 담배 제조업체

러시아 주요 담배 제조업체로, 전통 있는 브랜드이며 국내 담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 Дончмент (돈체멘트) — 건설 자재 생산업체

시멘트, 석회, 건축용 점토 등 건설 산업에 필수적인 자재를 생산하며,

남부 연방관구에서 건설 산업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이다.

- Ростовский речной порт (로스토프 내륙 강 항만)

돈강을 기반으로 한 내륙 수로 물류의 핵심 항만이다.

곡물, 석탄, 금속, 컨테이너 등 다양한 화물이 이 항만을 통해 수출·입되며,

러시아 내륙과 국제 무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물류 거점이다.

- Азовский морской порт (아조프 해상 항만)

아조프 해안에 위치한 중요한 해상 항만으로,

곡물 및 벌크 화물 수출 비중이 높아,

로스토프주가 농업 생산뿐 아니라 해상 수출 능력까지 갖춘 복합 경제지대임을 보여준다.

로스토프주는 다양한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농업 생산에서부터 가공, 기계 제조, 에너지 발전, 항만 물류에 이르기까지 완결형 산업 구조를 갖춘 러시아 남부의 전략적 핵심 지역이라 할 수 있다³⁵⁾.

35) expertsouth.ru

3.3 수출/수입



로스토프주는 러시아 남부에서 가장 활발한 대외무역 활동을 펼치는 지역 중 하나로, 농업과 식품가공을 기반으로 한 비원자재 중심의 수출 구조를 갖추고 있다. 2024년 기준, 로스토프주의 총 대외무역 회전율은 약 7억 5,515만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수출이 약 5억 4,830만 달러, 수입이 약 2억 32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약 3억 4,5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가 수입보다 수출에 더욱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³⁶⁾.

주요 수출 품목은 밀, 보리, 해바라기유, 식용유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중심이며, 이러한 제품들은 터키, 이집트, 방글라데시, 이란, 필리핀 등 여러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특히 터키와 이집트는 전통적인 곡물 수출국으로, 로스토프주의 밀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중동과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로스토프주가 단순한 내수 기반 지역을 넘어 글로벌 농식품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입은 주로 중국, 터키, 벨라루스, 헝가리 등지에서 이루어지며, 기계류, 전자부품, 산업 장비, 건축 자재, 의약품 등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품목이 중심을 이룬다. 특히 중국은 로스토프주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술 기반 산업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벨라루스와 헝가리는 농업 및 제조업 장비, 헝가리는 의약품 및 특수 소재 공급처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입 구조는 러시아 전체 대외무역 지표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로스토프주는 러시아 연방 내 대외무역 회전율 기준 10위, 총 수출 규모 기준 9위를 차지하며, 특히 비원자재 및 비에너지 수출 부문에서는 전국 2위에 오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로스토프주가 원유, 천연가스, 금속 자원 등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출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³⁷⁾.

종합적으로 볼 때, 로스토프주는 농업 생산력과 가공 산업의 결합, 그리고 수출 주도형 산업 구조를 통해 러시아 남부에서 가장 역동적인 무역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흑자 무역과 다양한 국가와의 교역을 기반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역 경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36) donexport.donland.ru

37) gorodn.ru

2019년 1월 기준, 로스토프 주의 대외교역 회전율은 751,5백만 달러에 달했다. 수출은 548,3백만 달러, 수입은 203,2백만 달러로 대외무역수지는 긍정적이며 총액 345백만 달러이다. 비CIS국가와의 대외무역수지는 308백만 달러이고, CIS국가와는 37백만 달러이다. 주요수출국은 터키, 이집트,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이란, 필리핀 순이며 주요수입국은 중국, 우크라이나, 터키, 벨라루스, 헝가리 순이다. 주요수출품은 가공식품 및 농산물, 연료에너지, 금속제품, 기계장비 및 운송관련장비 순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장비 및 운송관련장비, 가공식품 및 농산물, 연료에너지, 금속제품, 화학제품, 직물 순이다. 비CIS국가에게 수출하는 품목은 주로 가공식품 및 농산물이고, 수입품목은 가공식품 및 농산물과 기계장비 및 운송관련장비이다. CIS국가에게 수출하는 품목은 연료에너지, 가공식품 및 농산물이며 수입품목은 금속제품과 기계장비 및 운송관련장비가 주를 이룬다.

로스토프 주 수출입 현황 (2019년 1월)

지역	대외교역 회전율		수입		수출	
	백만달러	2018년 1월	백만달러	2018년 1월	백만달러	2018년 1월
전체	751,5	115,7	548,3	142,9	203,2	76,4
비CIS 국가	609,5	133,2	458,8	158,1	150,7	90,1
CIS 국가	142,0	73,9	89,5	95,3	52,5	53,1

* 출처: 로스토프 주 통계청

4. 사회문화

4.1 민족 및 인구구성

로스토프 주는 러시아 남부에 위치한 주요 행정구역 중 하나로, 인구 규모와 민족 구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지닌 지역이다.

2024년 기준, 로스토프 주에는 약 424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연방 전체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보여준다.

지역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42.0명으로, 이는 로스토프 주가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된 도시와 농촌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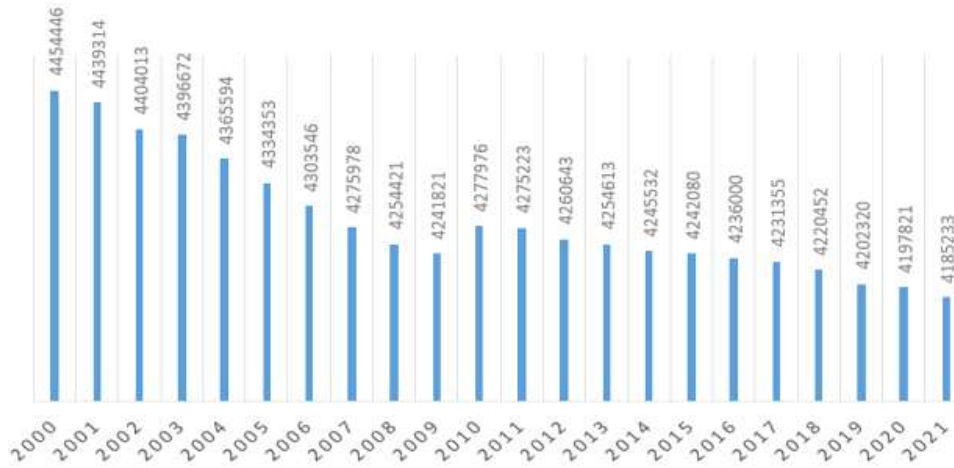
로스토프 주 내에서 인구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들을 살펴보면, 가장 인구가 많은 중심 도시는 단연 로스토프 온 돈(Rostov-on-Don)으로, 약 114만 명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주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 이상이 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도 중요한 도시로는 타간로크(Taganrog) 약 25만 명, 샤흐티(Shakhty) 약 23만 명, 그리고 노보체르카스크(Novocheerkassk) 약 17만 명으로, 각각 산업, 항만, 행정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³⁸⁾.

하지만 이러한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로스토프 주는 인구 감소 추세를 겪고 있다. 최근 수년간 주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출생률의 하락과 동시에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반면,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수는 줄지 않으면서 자연 인구 감소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감소세 속에서도 예외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시기도 있었다. 대표적인 예는 1990년대 후반으로, 이 시기에는 구소련 붕괴 이후 주변 독립국에서 유입된 러시아계 이주민들로 인해 일시적인 인구 증가가 나타났다. 특히 1997년에는 인구가 약 450만 명에 도달, 이는 로스토프 주 역사상 인구 규모의 최고치로 기록되어 있다³⁹⁾.

38) 61.rosstat.gov.ru

39) rostov.rbc.ru



로스토프 주 민족구성

민족 구성 측면에서도 로스토프 주는 다민족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 러시아인이 전체 인구의 약 85.8%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 아르메니아인이 약 2.05%,
- 우크라이나인이 약 0.62%,
- 체첸인이 약 0.34%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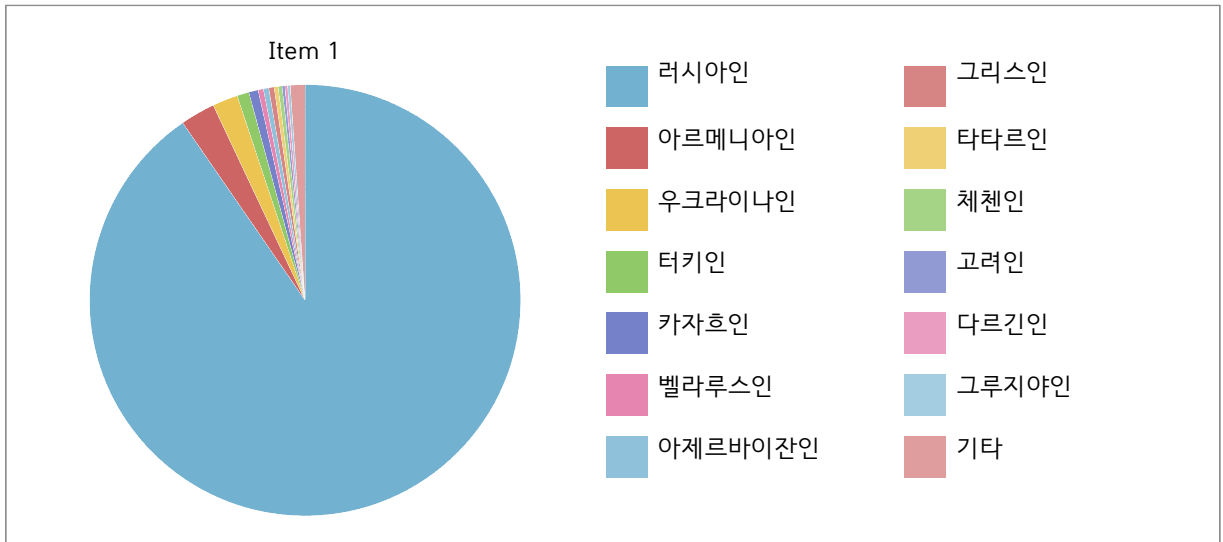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고려인(한국계 러시아인)의 존재이다. 로스토프 주에는 약 11,669명, 즉 전체 인구의 약 0.27%가 고려인으로 확인되며, 이 수치는 러시아 전체 내에서 고려인 인구 수 기준 3위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고려인 공동체가 로스토프 주 내에서도 일정한 규모와 역사적 뿌리를 가진 소수 민족 집단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로스토프 주는 인구 규모와 도시 분포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며, 동시에 최근의 인구 변화와 민족 구성을 통해 러시아 남부 지역의 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⁴⁰⁾.

4.2 교육

로스토프 주는 2018년 1월 기준, 약 3,000개의 교육기관이 있다. 일반교육기관은 1,102개, 초등학교 1,501개, 보육시설 26개, 특수학교 30개, 직업교육기관 62개, 전문대학 68개, 국립대학교 14개, 사립대학교 11개 등이 있다. 학생들의 교육훈련을 위한 “2016-2025 로스토프 주 현대적 교육조건에 따른 새로운 환경조성”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또한 해마다 500명의 우수졸업생에게 ‘특별과정’에 관한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 올림픽 게임, 시합, 운동경기 등에서 수상한 학생에게도 ‘황금별자리’ 메달을 수여한다. 로스토프주립경제대학, 남연방대학교, 로스토프주립세무대학 등이 있다.⁴¹⁾

40) don24.ru



4.3 문화예술

로스토프 주는 남부러시아의 중심으로써 공업, 농업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교육, 학문, 문화와 예술 등 사회적 측면도 발달해 있다. 로스토프 주에는 다양한 종류의 박물관과, 건축물, 기념관 등을 포함한 여러 역사·문화적 명소가 있으며 41개의 박물관(국립박물관 1개, 주정부관할박물관 15개, 지방정부관할박물관 25개), 1,066개의 도서관(국립도서관 3개), 그리고 8개의 극장이 있다. 더욱이 로스토프 주정부는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를 설정하여 지역의 문화적 발전가능성을 높이고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⁴²⁾

- 전문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 지역 문화 유산의 발전과 보호
- 도서관 사업 확장
- 재능 있는 젊은 예술인 발굴과 교육
- 돈 민족의 고유문화 보존과 다민족적 문화와의 협력
- 문화시설의 장비 및 기술 현대화
- 목표 프로젝트들의 개발과 현실화
- 과학 정보 지원
- 영화 촬영 지원
- 문화 및 예술 시설에 대한 시설 강화

로스토프 주의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코사크 문화이다. 돈 코사크들은 약 4세기 동안의 시간을 거치면서 매우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으며 현재까지도 로스토프 주의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인 사실주의 화가 일리아 레핀의 <터키 술탄에게 답장을 쓰는 자포로제의 코사크인들>이다. 이 그림의 역사적 배경은 당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술탄 무하메드 2세가 코사크인들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에서 시작되는데, 자신들의 답장이 자칫 거대한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고 있는 모습이 코사크인들이 가진 저항정신과 자유분방한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⁴³⁾

41) 로스토프 주 관광청, <http://www.dontourism.ru>

42) Bankgorodov.ru. <http://www.bankgorodov.r>

일리아 레핀의 “터키 술탄에게 답장을 보내는 자포로제의 코사크인들”



러시아 속담에 '코사크 인은 노래를 부르는 한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말처럼 돈 코사크인들의 문화적 유산 가운데 또 한가지 특징적인 것은 그들의 민속 노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21년 결성된 '돈 코사크 합창단(Хор донских казаков)'은 남성 특유의 장중하고 넓은 음색으로 현재까지도 세계 3대 합창단으로 손꼽히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노래들로는 찌히 돈(тихий Дон), 스텐카 라진(Стецька Разин), 검은 눈동자(Очи чёрные)등이 있다.⁴⁴⁾

43) 37) 로스토프프 주정부,

<http://www.translate.ru/SiteResult.aspx?dirCode=re&templateId=General&url=https://www.donland.ru>



4.4 주요관광지

로스토프 주는 찬란한 역사, 온화한 기후, 특색 있는 코사크 문화 등을 강점으로 관광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 주민들도 친절하며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다른 대도시에 비해 치안 문제도 안전한 편이다. 지역 내에는 357개의 숙박 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절반은 호텔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도 하숙집, 캠프장, 휴양시설, 레스토랑 등 관광객들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로스토프 주는 풍부한 초원지대, 특색 있는 돈 코사크 문화, 스키타인과 사르마티아인들의 고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유적지, 러시아 함대의 영광을 느낄 수 있는 아조프항 등이 있다. 스토프 주 공식 관광청은 정보적, 환경적, 생태적, 지리적, 민족적 등 이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관광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돈의 은빛 말발굽(Серебряная подкова Дона)'이라는 지역관광브랜드를 만들어 운영 중에 있다.

5. 유명인사

이름	출생	직업	사진
미하일 솔로호프 Шолохов Михаил Александрович	도네츠크 (1905년)	작가 (노벨 문학상)	
이고르 본다레프스키 Бондаревский Игорь Захарович	삼소노프 (1950년)	체스 선수 (그랜드마스터)	
안톤 체호프 Чехов Антон Павлович	타간로그 (1860년)	극작가	
세르게이 브체라쉬네프 Вчерашнев Сергей Георгиевич	살로호프스키 (1959년)	전쟁영웅	
타티야나 코토바 Котова Татьяна Николаевна	살로호프스키 (1985년)	가수, 모델, 미스러시아	
니콜라이 소로킨 Сорокин Николай Евгеньевич	베솔로프스키 (1952년)	배우, 정치인	

그 밖에도 로스토프 주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으나, 이곳을 여행하였거나 거주하는 등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들은 유리 가가린(Гагарин Юрий Алексеевич), 막심 고리키(Горький Алексей Максимович), 이오시프 스탈린(Сталин Иосиф Виссарионович), 블라디미르 마야코프스키(Маяковский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미하일 레르몬토프(Лермонтов Михаил Юрьевич), 알렉산드르 푸쉬킨(Пушкин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등이 있다.

6. 한국과의 관계

6.1 방문교류현황

- 2001년 9월, 로스토프고려인문화계몽자선기금단체, 한국교육원(개칭 한국문화원) 설립
- 2003년 5월,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 및 한국대표단 “로스토프고려인문화계몽자선기금단체” 방문
- 2004년 4월,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이 수원시에 로스토프 나도누시 자매결연 도시추천
- 2008년 - , 재외동포재단, 고려인 정착지원을 위한 영농센터 설립
- 2008년 5월, 충남 보령시 및 한국기업, 로스토프 주와 자동차부품공장 건립 MOU 체결
- 2012년 10월, 로스토프 주 고위급 공무원 13명 ‘2012 전자정부 글로벌 포럼’ 참가
영등포구 통합관제센터 방문, 서울 행정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등 시연
- 2013년 -, 로스토프 주 공무원,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글로벌 아카데미’에 참가
- 2015년 5월, LG전자 “Caring about every” 캠페인(헌혈캠페인) 진행
- 2017년 7월, 삼양목장 러시아 남부농업 민간투자환경 현지조사
- 2017년 7월, 서울대병원 의료진 로스토프암연구소 방문, MOU 체결
- 2018년 4월, 우유근 대사, 신북방정책추진기반 확대사업 및 로스토프한국교육원 방문
- 2018년 4월, KOTRA 주최 로스토프경제협력단 로스토프 나도누시 방문
- 2018년 6월, 문재인대통령 내외 방문(2018FIFA월드컵 한-멕시코 예선전 응원)
- 2018년 11월, 청주시와 로스토프 나도누시 우호교류협약 체결

6.2 한국 유명인과 로스토프 나 도누

가. 유병수 국가대표



유병수는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소속 축구팀인 FC 로스토프(Rostov)에서 활약한 바 있다. 그는 이 시기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해외파 선수 중 한 명으로 주목받았으며,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도 활동한 경험이 있는 선수다.

유병수는 본래 공격수(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뛰어난 골 결정력과 위치 선정 능력을 바탕으로 K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낸 후, 해외 진출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의 유럽 무대 도전은 러시아를 선택함으로써 실현되었고, 특히 FC 로스토프는 러시아 남부의 로스토프온돈(Rostov-on-Don)을 연고지로 하는 전통 있는 구단으로, 당시 러시아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유병수가 로스토프 구단에 입단한 것은 2013년으로, 이는 그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러시아 리그는 기후, 언어, 문화 등 여러 측면에서 한국 선수들에게 도전적인 환경이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꾸준히 출전 기회를 얻으며 팀에 기여했다. 특히 몸싸움과 수비 가담 능력에서도 발전을 이루며 전형적인 '유럽형 스트라이커'로의 성장을 보여주었다.

그가 FC 로스토프 소속으로 뛴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로스토프 구단이 점차 리그 내 입지를 강화해가던 시기이기도 하다. 유병수는 선발 및 교체 멤버로 다양한 경기에 출전했으며, 유럽 클럽 대항전에 진출하기 위한 팀의 성적 향상에 일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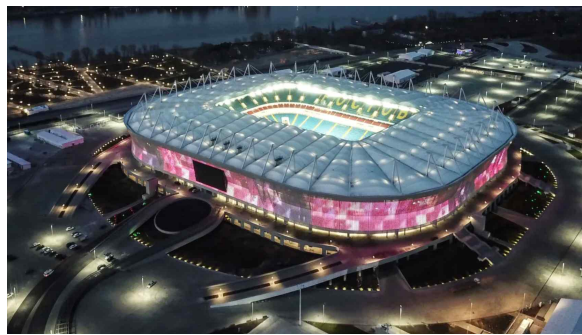
또한 이 시기는 유병수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도 일정 정도 연계를 유지하던 시기였다. 국가대표로는 2010년대 초반부터 간헐적으로 선발되어 활동했으며, 러시아에서의 활약은 그가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한국 선수로서 주목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 문재인 전 대통령



출처: 한국일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FIFA 러시아 월드컵 기간 중, 대한민국 대표팀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로스토프나도누(Rostov-on-Don)에 위치한 ‘로스토프 아레나(Rostov Arena)’ 경기장을 직접 방문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2018년 6월 23일,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 vs. 멕시코 경기를 현장에서 관람하였다. 이 경기는 로스토프 아레나에서 열렸으며, 약 4만 5000여 명의 관중이 몰린 가운데 치러졌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편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직접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현지 교민 및 응원단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방문은 단순한 스포츠 관람을 넘어, 한-러 관계 강화 및 문화·체육 외교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특히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러시아 월드컵 현장을 찾음으로써, 스포츠를 통한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에도 효과를 거두었다⁴⁵⁾.

또한 이 방문은 당시 대한민국 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문 대통령이 직접 경기장에 방문해 선수단을 응원한 첫 대통령으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로스토프 아레나는 이처럼 월드컵 경기장의 상징 중 하나로 남게 되었으며, 한국과 로스토프 간의 특별한 연결 고리로도 기억되고 있다.

45) cityreporter.ru

6.3 핵심이슈

신라의 금관과 사르마트 금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과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사르마트 지역이었던 로스토프 지역(노보 체르카스크 호호라치 무덤군)의 흑해 주변에서 출토된 사르마트 금관이 있다. 금관의 형태가 발견된 국가는 3곳으로 한국, 아프가니스탄, 러시아의 로스토프 지역으로 꼽힌다. 신라 금관은 스키타이 문화에도 나타나는 녹각수지형(鹿角樹枝形: 사슴뿔 모양)과는 달리 사슴의 뿔과 나무를 동시에 형상화한 느낌이 있습니다.⁴⁶⁾ 많은 학자들은 이 둘의 기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쪽 당시의 문화가 초원길을 따라 삼국시대의 신라에까지 전해졌다는 데에 많은 학자들이 동의한다.

<신라 금관>



<사르마트 금관>



46) 열린전북(재인용), “금관의 나라, 신라”, 2016년 5월호, http://openjb.co.kr/openjb/bbs/view.php?id=pds&page=6&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2&PHPSESSID=27d63cb41c1c537d5dd5fc1ab434991d(검색: 2019년 5월 26일)

6.4 현지 한국 기업

6.4.1 자동차 및 부품조립공장

로스토프 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와 러시아 내륙으로는 물론, 타간로그항을 통해 흑해를 거쳐 유럽으로의 수출 또한 용이하다는 지리적 이점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1990년대 말부터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지금은 비록 사라졌지만, 국내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로스토프 주로 진출한 기업은 대우그룹이었다. 1990년대 국내의 그 어느 기업보다도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적이었던 대우그룹은 러시아, 카프카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을 위한 해외기지로 로스토프 주 타간로그 시를 결정하였고, 이듬해인 1998년에는 타간로그 시에 위치한 러시아 자동차 회사인 타가즈와 제휴를 맺어 씨에로(현지명: 넥시아, NEXIA)를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넥시아는 반제품 방식으로 조립 생산된 러시아 최초의 외국산 자동차로 기록되며 현재까지도 러시아 중고차 시장에서 약 20만 루블(한화 약 700백 만원) 내외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차량이다. 하지만 대우자동차는 그룹 부도로 인해 GM에게 인수되고 이후 타가즈사와는 제휴를 중단하게 된다.⁴⁷⁾

2000년에는 현대자동차가 높은 발전 가능성을 가진 러시아 시장으로의 판매 허브로 로스토프 주를 선택하게 되고, 자동차조립공장인 타가즈사와 제휴하여 소나타, 포터, 산타페, 엘란트라 등을 반제품 조립형태로 생산, 판매하기 시작했다. 타간로그 시에 위치한 이 공장은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이 생기기 이전까지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현대자동차의 60%를 생산했을 정도로 그 비중이 컸다. 2006년에는 쌍용자동차가 국내에서 단종된 코란도(현지명: 타가즈 타거)와 무쏘(현지명: 타가즈 로드파트너)의 생산라인을 타가즈사로 수출해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를 시작하였다. 2008년 5월, 충남 보령시와 타가즈코리아는 보령내 관창산업단지에 자동차부품조립생산공장 건설을 위한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는 러시아와의 국교수교 이후 최대의 투자액이었으며, 2008년까지 한국 내에 투자된 총액(2,878만 달러)보다 20배 이상이나 큰 액수였다.⁴⁸⁾

47) 한겨레뉴스, “러시아 내륙운송의 혈맥 '돈강의 로스토프'와 '아조프해 숨은 보석 타간로그'”, 2013.01.14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69589.html [검색: 2019년 5월 26일]

48) 2009년 타가즈 임직원의 GM대우 기술도용 사건으로 인한 가치분 결정과 기업회생 절차 기각으로 투자가 어렵게 되었고, 결국 2010년 타가즈 코리아는 입주 해약을 보령시에 요청하게 된다. 이에 충청남도는 그 동안의 미납된 토지임대료 34억 원을 타가즈 코리아에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영철, 아시아경제, 2012.3.8). (검색: 2019년 5월 26일)

6.3.2 제약회사

로스토프 주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셀트리온이다. 바이오 제약회사인 셀트리온은 2009년 유한책임회사 셀트리온돈을 설립하면서 이 지역에 투자를 시작하였고, 23만 평의 부지를 개발하여 오이, 토마토, 양파 등을 재배해 한국에 들여오고 있다. 셀트리온은 중장기적으로 여의도 크기에 버금가는 1억 5천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세계적 영농기업으로의 발돋움 및 해외 식량기지 확보로 국내 식량 안보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셀트리온은 국내 한약재 생산업체인 옴니허브 그리고 대구시와 제휴하여, 로스토프 주에 대규모 유기농 한약재 생산 단지를 설립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프로젝트 또한 계획 중에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셀트리온은 1년간의 시험재배와 시장조사가 성공적으로 끝날 경우 빠르면 내년부터 품종등록을 마치고 로스토프주 농장의 비닐하우스 20동(1동 200평)에서 신품종 딸기인 ‘싼타’를 생산하기로 했다. 싘타의 러시아 생산·판매는 셀트리온이 맡고, 로열티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경북도농업기술원이 받는다.⁴⁹⁾

6.3.3 신재생에너지

2014년에는 3억 달러 규모의 환경 플랜트 사업권 계약을 체결한 러시아 로스토프주 주택도시건설부 장관(Sergey Sidash) 등 러시아 고위 관계자가 방문해 한국의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들을 시찰하고, 러시아 로스토프 주정부가 투자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장 기반의 테크노파크 건설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 선정된 스틸플라워의 생산 시설과 상암매립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단, 구미시 환경자원화 시설 등 국내 대표 매립지 현장을 견학하고 한국의 환경플랜트 기술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6.3.4 한국교육원

2005년, 대한민국 외교부의 공식 지원을 통해 러시아 남부의 중심 도시인 로스토프나도누(Rostov-on-Don)에 한국문화원(Корейски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이 설립되었다. 이 문화원의 개원은 한-러 양국 간 문화적 교류를 심화시키고, 지역 차원에서의 외교 협력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특히 로스토프는 남러시아의 교육, 산업, 문화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고려인을 포함한 한국계 디아스포라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상징성이 컸다.

한국문화원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지역 사회와의 문화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은 문화원의 핵심 역할 중 하나로, 현지 대학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고, TOPIK(한국어능력시험) 대비반 운영, 장학생 선발, 한국 유학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⁵⁰⁾.

49) 최중호, “국산딸기 싘타 러시아 진출 추진”, 연합뉴스, 2011.9.26, <https://www.yna.co.kr/view/AKR20110926109600061>(검색: 2019년 5월 26일)

50) <http://rostovkec.org>



또한 한국의 전통 및 현대 문화를 소개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한국 영화제, K-POP 콘서트, 한식 요리 교실, 한복 체험, 서예 및 공예 워크숍,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주민들이 직접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설날, 추석과 같은 전통 명절에는 지역 고려인들과 함께 공동 행사도 진행하며, 역사 강연이나 가족사 프로젝트 등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지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 문화원은 단순한 외교기관을 넘어서, 문화 외교의 거점으로 기능하며 한러 관계의 풀뿌리 외교를 이끌고 있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수도권을 넘어 지방 도시에 설치된 보기 드문 사례로, 한국이 러시아 남부 및 흑해 연안 지역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 로스토프 한국문화원은 한국과 러시아 간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한국어 학습 인구 확대, 한국 유학 증가, 고려인 공동체의 문화적 연대 강화, 한국 기업과 음식문화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처럼 로스토프 한국문화원은 대한민국의 지역 문화 외교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현지 사회와 호흡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3.5 한국 전통무용단 ‘금강산’

로스토프나도누 한국 전통무용단 ‘금강산’은 1991년에 창단된 러시아 내 대표적인 한국 전통예술 단체 중 하나로, 로스토프주 고려인협회(OKPO, 이전 명칭: AKPO)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무용단의 설립은 소련 붕괴 직후 사회적 전환기를 맞은 고려인 사회가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다. 금강산 무용단은 ‘남한의 전통 한국무용’을 중심 레퍼토리로 삼고 있으며, 부채춤, 장고춤, 승무, 화관무 등 한국 전통무용의 대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공연하면서 러시아 남부 지역 사회에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보급하는 데 크게 기여해왔다.

이 무용단은 단순히 내부적인 공연에만 그치지 않고, 로스토프주 및 인근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 시·도 주최 기념일, 다문화 축제 등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며 현지 주민들과의 문화 교류를 활발히 이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강산 무용단은 러시아 국내를 넘어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해외에서 개최되는 한국무용 및 전통문화 관련 국제 페스티벌에도 꾸준히 참가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러시아 내 고려인 문화예술의 수준과 정체성을 국제 무대에 소개하고 있다.

이 단체의 존재는 단지 예술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러시아 남부 지역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되고 점차 동화되어 가는 고려인 공동체 내에서 민족 문화의 맥을 끊기지 않게 하는 데 중추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에게 전통무용을 가르치며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역할도 담당한다. 동시에 금강산 무용단은 문화 외교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공연을 통해 한국문화를 외부에 알리고, 러시아 사회 내 다양한 민족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며, 한국과 러시아 간 문화적 소통과 우호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금강산’ 전통무용단은 로스토프 지역 고려인 사회의 문화적 상징이자, 한국 전통 문화의 해외 보급 및 국제 문화교류의 주역으로서 30년 이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라 할 수 있다.



7. 참고문헌

단행본

김동완, “러시아 남부지역 농업 현황”, 세계농업 제155호, 2013년 7월, 14쪽.

김선래, “러시아연방주체 개관 시리즈: 무르만스크 주”,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7년 8월, 25-26쪽.

김혜진, “러시아 로스토프 주 내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정과 특징”,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제28호, 2010년 6월, 342-343쪽.

로스토프 주통계청,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Ростовской области в январе-марте 2019 года”, pp. 46-48.

관련사이트

로스토프 주정부, <http://english.donland.ru>

로스토브 주의회, <http://www.zsro.ru/en>

로스토브 주 법원, <http://oblsud.ros.sudrf.ru>

로스토프 주통계청, http://rostov.gks.ru/wps/wcm/connect/rosstat_ts/rostov/ru

로스토프주 관광청 공식사이트. <http://www.dontourism.ru>

Alimenty-export, <http://alimenty-expert.ru>

인터넷 기사

이영철, “타가즈코리아에 폐인 34억원, 충남도 어떻게”, 아시아경제, 2013.3.8, <https://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30723162694763>(검색: 2019년 5월 26일)

정상원, “최선을 다했다-문 대통령도 멕시코전 응원”, 한국일보, 2018.6.24,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6240156074587>(검색: 2019년 5월 26일)

최종호, “국산딸기 싹타 러시아 진출 추진”, 연합뉴스, 2011.9.26, <https://www.yna.co.kr/view/AKR20110926109600061>(검색: 2019년 5월 26일)

한겨레뉴스, “러시아 내륙운송의 혈맥 '돈강의 로스토프'와 '아조프해 숨은 보석 타간로그’”, 2013.01.14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69589.html(검색: 2019년 5월 26일)